

#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 모차르트를 탐험하다

ACC재단 ‘슈퍼클래식’ 두 번째  
10월23일 ACC 예술극장 극장2

올해로 데뷔 69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백건우.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끝없는 탐구심으로 ‘건반 위의 구도자(求道者)’라 불리는 그는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세계를 두드려왔다.

10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러시아 피아니즘의 대가 로지나 레빈을 사사했으며 이후 유럽에서 발헬름 쾨프 등 거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더해갔다. 1969년 부조니 콩쿠르, 1971년 뉴욕 나움부르크 콩쿠르 등을 거치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고, 뉴욕 링컨센터 독주회, 베토벤 소나타 전국 리사이틀, 수많은 작곡가의 전집 음반으로 한국 클래식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왔다.

베토벤의 고독, 쇼팽의 비애, 슈만의 광기와 순수를 건반 위에서 직조해온 그가 모차르트의 밝음과 어둠을 함께 통과하며 가장 인간적인 음악적 고백을 준비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오는 10월 23일(오후 7시 30분) ‘백건우와 모차르트’ 공연이 열린다.

백 피아니스트의 첫 모차르트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전국 순회공연의 일환이자, ACC재단이 마련한 ‘ACC 슈퍼클래식’ 두 번째 무대다. 2024년 5월 모차르트 전곡 음반 시리즈 3부작 중 첫 앨범을 발매한 그는 이미 17개 도시를 돌며 ‘프로그램 I’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번에는 ‘프로그램 II’로 광주 관객을 만난다.

이번 무대는 그 자체로 ‘모차르트 탐험의 일지’이자 ‘순수함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백 피아니스트는 모차르트 전 생애를 아우르는 작품들을 통해 익숙한 곡과 덜 알려진 명곡들을 조화롭게 엮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1부는 고전적 아름다움의 정수를 담은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K.545’로 시작한다. ‘초심자를 위한 소나타’로도 불리지만, 간결한 선율 속에 고전주의 음악의 정제된 완성도를 품은 작품이다. 이어지는 ‘론도 A

단조 K.511’은 절제된 고요함과 선율의 서정성이 돋보이는 곡이다. 1부의 마지막 작품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조 K.332’는 유려하고 서정적인 흐름 속에서 모차르트 특유의 다채로운 감정 세계를 그려낸다.

2부는 비교적 생소한 곡들로 시작해 색다른 감성을 선사한다. 특히 ‘글라스 하모니카를 위한 아다지오 C장조 K.356/617a’는 모차르트 생애 마지막 해인 1791년에 작곡된 곡으로 어린이같이 순수하고 투명한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다. 모차르트 음악의 덜 알려진 측면을 조명하려는 백 피아니스트의 의도가 담긴 선곡이다. ‘작은 장례 행진곡 C단조 K.453a’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으로 천진함과 쓸쓸함이 교차하는 모차르트의 낮은 정서가 드러워져 있다.

이후 무대에 오를 ‘피아노 소나타 10번 C장조 K.330’은 모차르트의 대표작 중 하나로 명량한 1악장, 차분한 2악장, 유쾌하고 장난기 가득한 3악장이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단순한 구조 속에서도 연주자의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작품인 만큼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은 ‘환상곡 C단조 K.475’.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실험적이고도 내면적인 곡 중 하나로, 전통적인 형식을 탈피한 극적인 전개가 특징이다. 감정의 심연을 탐색한 이 곡은 그동안 장난기 많고 유머러스한 면모로 알려진 모차르트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 그의 해석을 통해 모차르트의 내면이 깊이있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건우의 매니지먼트사인 판테온 관계자는 “수십 년간 건반을 마주해 온 거장에게도 모차르트는 끊임없는 고민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공연은 장조와 단조를 오가는 작품들 속에 담긴 순수함과 내면의 아픔을 건반 위에서 섬세하게 풀어낼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석 3만원, S석 5만원, R석 7만원, ACC재단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백건우와 모차르트’ 공연이 오는 10월 23일 ACC 극장2에서 펼쳐진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ACC재단 제공>

##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모차르트 프로그램 II

# MOZART



국악중심연의 지난 공연 모습. <국악중심연 제공>

## 국악중심연 창단 25주년 기념 2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전통을 매개로 맺은 인연과 마음들이 쌓이고 얽여, 무대 위에서 하나의 서사로 피어난다.

창단 25주년을 맞은 (사)국악중심연이 오는 24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기념 공연 ‘유정불망-인연으로 이어진 길’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유정불망(有情不忘)’. 예술의 여정을 함께 해온 수많은 인연과 그 안에 담긴 정(情)을 잊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국악중심연 김나영 대표와 오랜 시간 협업해온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이 모여 예술로 맺은 정을 되새기는 자리다. 진도, 전주, 남원, 서울, 대구, 천안 등에서 활동 중인 전통예술가들이 지역의 고유한 색과 기량을 한데 모아 한 무대에 올린다.

프로그램은 전통춤의 정수부터 창작무대까지 다채롭다. 김나영의 북춤, 양태옥 류 진도북놀이, 한영숙 박재희류 태평무, 손혜영의 산조춤과 승무, 이매방류 살풀이춤 등 무게감 있는 전통 춤이 줄을 잇는다.

다. 단막극과 창작 공연도 함께 마련돼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배우 3인이 사회자 없이 극 흐름을 주도하는 연극적 형식으로 구성돼, 가(歌)·무(舞)·악(樂)·극(劇)의 결합이라는 전통 공연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한다.

무대 연출은 극단 자루의 오지훈 대표가 맡고, 음악은 전통국악양상블 놀음반의 김승호, 양희정, 김원근 등 실력과 연주자들이 함께한다. 출연진에는 박강열(진도북놀이 예능보유자), 손혜영(태평무전승회 영남지회장) 등 전통예술계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며 각 세대를 아우르는 예술적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국악중심연은 2000년 창단 이래 광주를 기반으로 전통춤과 음악의 조화를 탐구해 왔다. 교육, 찾아가는 공연, 후진 양성 등을 통해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에 힘써왔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선정한 우수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등 기획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APEC 공식 문화공연에 참여하고, 전국 순회공연 등을 통해 지역 예술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자연의 순리 지나온 ‘내 삶의 언저리’

이승기 개인전...24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

예술가들은 자신의 삶을 작품을 통해 반추하고 성찰한다. 사계절 변하는 자연에 순리에 따라 인생을 사유하고 지나온 창작의 시간과 앞으로의 길을 가늠한다.

이승기 작가의 8번째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ACC디



‘폭풍전야’

자인호텔 1층 별관 갤러리. ‘내 삶의 언저리’(오는 24일까지)를 주제로 진행 중인 이 작가의 전시는 화사한 색감의 작품이 눈길을 끈다. 맑으면서도 밝지만 서정적 분위기를 발한다. 작가가 깊은 마음으로 자연과 피사체를 응시해 심미적으로 해석했다는 방증이다.

작품 가운데는 구 경전선 폐선 부지에 조성된 ‘푸른길’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그림도 있다. 동일한 제목의 ‘푸른길’은 붉은 단풍이 완연한 가을날의 풍경을 초점화했다.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형형색색의 나무들이 늘어선 모습은, 흔히 말하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다소 결이 다른 작품도 있다. 감청색의 어두운 바다를 배경으로 닻을 내린 배를 그린 ‘폭풍전야’가 그것이다. 곧 닻쳐올 폭풍을 예감하게 하는 자연은 비단 기후적인 폭풍뿐 아니라 삶의 여정에서 예



‘푸른길’

고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풍랑을 은유한다.

‘동백꽃’은 작곡의 무대위를 저만치 밀어낸다. 한기를 뚫고 붉은 꽃망울을 피운 동백의 자태에서 추위를 이겨낸 인고의 시간을 떠올리게 된다.

이승기 작가는 “8번째 개인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삶의 언저리에서 사유하게 되는 상념들과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며 “작품들을 통해 폭염도 있고 저마다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작가는 캄보디아 나눔 여행 등 다수의 단체인, 개인전에 참여했다. 광주미협, 광주기독미술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제36회 이견음악회 아리랑 편곡 공모전’

9월 14일까지 접수

해의 연주자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리랑’을 찾는다.

이견박영주문화재단이 ‘제36회 이견음악회 아리랑 편곡 공모전’을 통해 올해 음악회 앵콜 무대를 장식할 편곡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오는 9월 14일까지.

이번 공모전은 아리랑을 오케스트라에 맞게 편곡하는 프로젝트다. 선정된 편곡곡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6회 이견음악회의 앵콜곡으로 무대에 오르게 된다.

올해 음악회에 초청된 팀은 노르웨이 챔버 오케스트라(NCO) 소속 현악 6중주단. 1977년 창단된 NCO는 유럽을 대표하는 실내악단으로 정교한 앙상블과 실험적인 무대로 클래식 음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편곡 대상은 정선·밀양·진도 등 자유롭게 선택한 아리랑이며, 편성은 현악6중주(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2, 콘트라베이스)에 맞춰야 한다. 참가 자격 제한은 없으며, 신청서·PDF 악보·MP3 또는 MIDI 음원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한 접수 방법은 이견음악회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음악평론가 홍승찬 교수를 포함한 클래식 전문가 자문단과 NCO 단원이 함께 진행한다. 최우수작에는 상금 500만 원과 공연 초청권, 우수작에게도 상품권과 관람권 등이 제공된다.

한편 이견음악회는 1990년부터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음악가를 초청해 무료 클래식 공연을 이어온 대표적인 민간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공모전 외에도 음악영재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청소년 대상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올해 음악회는 11월 15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을 시작으로 대구·광주·부산·인천 등에서 순회 공연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견음악회 관계자는 “한국의 민요가 국내외 연주자들을 통해 다채롭게 재해석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문화적 경험이 될 것”이라며 “뜻깊은 무대의 주인공이 될 재능 있는 작곡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